

‘女心저격’ 1인 오피스텔... 보안 강화에 특화설계까지

선호 공간배치·침단 시스템 등 적용
안전·편의성 높은 곳 실수요자 인기

여성 나홀로족을 겨냥한 오피스텔 설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여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공간배치, 특화설계를 도입해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인택배 시스템, 사선형 창호설계, 드레스룸, 광폭 주차 시스템 등이 도입된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겁다.

특히 보안 등 주거 안전성이 높은 오피스텔이 여성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10월 KCC건설이 경기도 안양에서 분양한 ‘안양 KCC 스위트’은 오피스텔 307실(전용 65~74㎡) 공급에 2만 2445건이 접수돼 평균 73.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보안·안전강화 시스

〈여성 특화설계 선보이는 분양 오피스텔〉

위치	단지명	규모(실)	전용면적(㎡)	분양시기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폼	464	20~43	2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1,050	19~84	분양중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	234	18~25	3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이안 테라디움 광안	156	23~29	3월

템’과 ‘침단 디지털 시스템’ 등 안전과 관련된 설계를 적용했다. 일반 아파트 대비 4배 이상인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무인경비 시스템, 침단 디지털 도어록, 세대현관 침입탐지 시스템과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밖에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 등도 인기 요소로 꼽힌다.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3·4Bay(베이) 구조를 도입해 주방이나 거실공간을 침실과 분리하고, 드레

스룸과 파우더룸 등의 특화 설계로 높은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천정고를 높이고 발코니나 테라스 등을 적용해 탁트인 공간감을 확보하거나 발레파킹·아침 제공·세탁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부터 구조, 편의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설은 여성 실수요자들의 오피스텔 선택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여성과 관련된 주변시설

이 있거나 쇼핑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에도 여성 특화설계가 도입된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른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풍산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폼’은 군포송정지구 내 유일한 전 실 복층형 다락 설계를 적용하고 개인 취향에 따라 침실, 작업실, 메이크업룸 등으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478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전용 20~43㎡ 총 464실, 상업시설 총 72실(1·2층)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050실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일부에 테라스 또는 복층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스카이라운지, 전망대, 스카이버릿지, 옥상정원 등의 조성에도 특화설계가

도입됐다. 원격검침시스템, 방범시스템, 도어락 등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췄다. 전용 19~84㎡ 규모다.

㈜한라는 오는 3월 수원시 권선구에 초역세권 오피스텔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를 선보인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역 인근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대단지로, 트렌드에 맞는 실용적인 풀퍼니시드 시스템(일부세대)을 갖췄다. 지하 4층~지상 15층, 오피스텔 전용 18~25㎡ 234실 규모로 조성된다.

대한토지신탁이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서 ‘이안 테라디움 광안’을 내달 분양한다. 광안리 해변을 단지 앞에 둔 이 오피스텔(오피스+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19층, 1개동, 전용 23~29㎡ 총 156실로 이뤄진다. 높은 층고의 복층 특화설계(일부호실)를 적용해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난방비 걱정 없는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완공

세종시 60가구 등 총 298가구 공급
동일 규모보다 60% 에너지 절감 효과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아 냉·난방비 걱정 없는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 완공돼 입주자를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세종시 임대형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에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단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 김포, 오산 등 3곳에 들어서며 총 298가구로 조성된다.

세종 행복도시 1-1 생활권에는 60가구(전용면적 85㎡),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120가구(85㎡),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79㎡)가 각각 공급됐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 서비스다.

이는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거비를 경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기술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60%가량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국토교통부

이들 주택엔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임없이 감싸는 ‘외단열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이용됐다.

또 이들 주택은 태양광 패널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 고효율 설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주택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로

활용 가능한 마당이 있다. 전문 임대관리 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도 제공한다.

세종시 단독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에 제로에너지 2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두 곳의 주택은 에너지효율 1++에 제로에너지 5등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 이들 주택을 조성했기에 유형별로는 단기(4년) 민간임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입주자 소득 자격이 별도로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금이 일부 투입됐기에 노후도 분양가족과 신혼부부에게는 물량의 30%가 특별 공급됐다.

이들 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됐다.

세종 단독주택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48만원, 김포는 보증금 2억3000만원에 월세 48만원, 오산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6만원이다.

국토부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동탄2신도시와 부산, 세종에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2019년형 푸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08. /정연우 기자

새 심장달고 더 강해진 ‘아기사자’

자동차 시승기

푸조 소형 SUV 2008

푸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08은 지난 2014년 국내 출시 당시 사전 계약 1주일 만에 1000대를 돌파한 차량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 7803대를 기록했으며 유럽 누적 판매량은 2013년 글로벌 출시 이후 2018년까지 123만대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변경돼 돌아온 푸조의 새 ‘기대주’ 2019년형 2008을 만나보았다.

2008 외관을 처음 마주했을 때 작지만 다부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날렵한 전면 디자인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측면이 매력적이었다. 3D LED 램프로 명명된 테일램프는 마치 사자가 활린 듯한 발톱 자국을 형상화 하고 있다.

차체 제원은 4159mm의 전장, 1739mm의 전폭 그리고 1556mm의 전고를 갖췄다. 공차중량은 1290kg이다.

2008에 탑승해 제주의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주행거리는 푸조·시트로엥 렌터카 하우스를 출발해 서귀포시에 있는 푸조·시트로엥 자동차박물관까지 약 80km다.

운전대에 앉자 가장 먼저 작은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띄었다. 오락실 자동차 게임 좌석에서 자주 보았을 법한 운전대의 모습이다. 상단부와 하단부가 잘려지면서 속도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되었다.

기존 모델 보다 최고출력이 약 20%, 최대토크가 약 18% 높아진 1.5 BlueHDi 엔진은 120마력, 최대토크는 30.61 kg.m의 성능을 발휘해 경사진 오르막길도 가볍

게 주파했다. 복합연비는 15.1km/l (도시 14.2 km/l, 고속 16.5 km/l), 더불어 기존의 6단 전자제어 자동변속기 ETG6를 대체한 EAT6 자동변속기는 편안한 주행 환경을 조성한다.

푸조관계자에 따르면 1.5 BlueHDi 엔진은 환경부로부터 WLTP(국제표준 시험방식) 인증을 승인 받았으며 PSA 그룹의 SCR(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DPF(디젤 입자 필터) 기술이 적용돼 있다. SCR과 DPF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90%까지 줄여주며 미세한 입자 제거율을 99.9%까지 높인다. 미립자 필터 앞쪽에 설치된 SCR 시스템은 모든 주행 조건에서 작동한다.

풍절음과 노면소음도 크지 않아 동승자와 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을 통과할 때의 진동은 시트와 스티어링 휠로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을 정도다.

다만 180센티미터 이상의 성인남성이 운전하기에는 좌석이 비좁다는 느낌을 받았다. 키가 큰 남성이 운전대를 잡으면 5인승 차량은 3인승이 되어 버린다.

또한 시트포지션이 높아 다소 불편함이 느껴졌다. 해안도로의 특성 상 커브길이 많았는데 시트포지션을 최대한 낮춤에도 우회전 시 핸들을 돌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아서 불편했다. 시트 높낮이는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 전 충분히 높이를 맞춰야 한다.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물병이나 음료 캔을 넣기에는 센터콘솔이 좁았다.

한편 2019년형 푸조 2008의 트림별 가격은 알파르 3113만원, GT 라인 3312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주택시장 ‘퐁퐁’... 서울 1월 거래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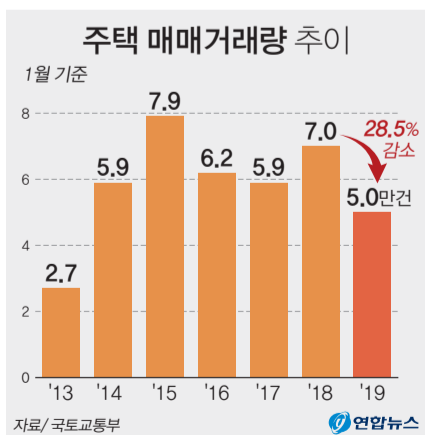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비 28.5% 줄어
계절 비수기·부동산 대책 여파 몰려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13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주택 시장 촉환기가 좀처럼 끝나질 않는 모습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전년 동월(7만 354건) 대비 28.5% 감소했다. 5년 평균(6만5950건)에 비해서도 23.8% 줄어든 수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 1월 주택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지난 2013년 1월 2만7000건을 기록한 이



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전체 월별로 거래량을 보면 2013년 8월 4만6000건을 기록한 이후 6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1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6040건으로 전년 동월(1만5107건) 대비 60.0%나 감소했다. 전월 대비해서는 13.5%, 5년

평균 대비 26.7% 줄어든 수준이다.

수도권 거래량은 2만248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8%, 지방은 15.8%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26.7%, 지방은 21.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3만1305건)은 전년 동월 대비 34.1%, 연립·다세대(1만1051건)는 16.2%, 단독·다가구(7930건)는 17.8% 각각 줄었다.

반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781건으로 작년 동월(14만9763건) 대비 12.7% 늘었다.

1월 거래량만 봤을 때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 전월세 물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이는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많아 전월세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10만8881건)은 작년보다 12.8%, 지방(5만9900건)은 12.6% 각각 증가했다. /채신화 기자